

자끄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관한 소고

- 언어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

박 성 수*

On Jacques Lacan's Theory of Psychoanalysis

Sung-Soo, Park*

〈目 次〉

- | | |
|---------------------|-----------|
| 1. 구조주의 언어학의 일반적 수용 | 3. 상상적인 것 |
| 2. 현실적인 것 | 4. 상징적인 것 |

현대사상에 있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갖는 중요성은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경우 그 중요성은 단순한 외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적인 구성요소로 자리잡게 되므로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프로이트 이론은 이미 구조주의적인 변용을 통해 수용된다.

이 변용은 자끄 라캉에 의해 심도있게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라캉의 재구성을 주로 언어학적 측면에서 몇가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구조주의 언어학의 일반적 수용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호학적 체계는 일정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기호라 불리우고 기호는 우리가 행하는 사고작용을 음성 따위의 물리적 표현과 결부시킨다. 그리고 이 결부작용이 기호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작용과 물리적 표현간에 자연적 연결이 배제되어야 한다. 즉 표현하는 매체와 표현되는 대상간에는 인위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인위적인 한 그 인위적 체계의 사용은 그 체계의 습득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소위 자연언어의 경우 그러한 인위성은 우리가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서로 다른 표현매체 예컨대 '개', 'dog', 'Hund' 등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데서 표현된다. 여기서 개념을 기의 (signifié)라 부르고 물리적 표현의 측면을 기표(signifiant)라 부른다. 이 관계를 소쉬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냈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철학 전공)

기표와 기의는 종이의 앞뒷면 처럼 상호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결부는 인위적이다. 이로부터 기표와 기의간의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제시된다.

첫째는 기호의 '가치'라는 측면이다. 기표와 기의간의 관계가 인위적인 이상 그 둘간의 관련은 자연적 근거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한 기표와 다른 기표간의 관계는 기호체계 외부의 어떤 실재에 준거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화폐의 경우 100원이라는 화폐가 갖는 가치는 그자체로서 (자연적으로)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100원은 단지 다른 화폐단위 즉 50원, 1,000원, 등과와 상호관계, 그리고 이 화폐단위의 체계가 다른 단위체계인 1달러, 100달러 등과 갖는 관계를 통해서만 규정된다. 결국 가치는 체계를 전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 기호의 값 또는 가치란 기호체계 전체를 이미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관계를 소위르는 차이라 부른다. 따라서 랑그 안에는 오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는 사고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낳게 되는데,

"실체라는 적극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대신에, 한 체계의 실체는 '소극적'으로 파악된 대립의 네트워크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차이에 의해 규정된 동일성'이라 부를 수 있다."¹⁾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로의 전환은 기표의 우위라는 사상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여기서 두번째 특징이 나온다. 한 기호의 가치를 그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가 다른 기호에 대해 갖는 차이에 따라 규정하게 될 때에 그것은 기표를 근거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pad' 와 'bad' 는 'p', 'b'라는 단위간의 차이를 통해 각각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내용이나 의미에 해당하는 기의가 아니라 물리적인 차이로 서로를 구별하는 기표이다. 기의에 대한 기표의 우위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기본성격중 하나이다.

세계로 차이의 관계에 중점을 둠에 의해 나타나는 또다른 결과는 언어학에서 지시성의 폐기이다. '사과'라는 기호는 더 이상 언어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과라는 사물을 지시하지 않는다. 기호의 가치가 체계내의 차이에 의해 식별, 규정되는한 그 기호의 의미적 가치도 역시 그렇다.

의미는 기호의 체계내적 위치상의 값이다. 이는 각각 다른 언어체계 간의 의미경계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trae	Baum	arbre
	Holz	bois
skov	Wald	forêt

1) Sandor Herrey, *Semiotic Perspective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82. p.12

이러한 예가 보여주는 것은 각 체계내에서 단어들은 어떤 동일한 외부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기호의 의미를 지시대상과의 관련 아래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내적 차이를 통해서만 확인한다.

“그 값들은 문화적 단위에 상응하지만 그러나 그 값들은 순수한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그 값들은 그 내용의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 체계의 다른 요소들에 대립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그 값들이 체계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로서 정의된다.”²⁾

이는 달리 말해 의미와 지시체가 구별되어야 한다면 언어학은 후자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미작용과 지시작용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현실적 또는 자연적 대상으로부터의 일정한 후퇴가 일어나게 된다. 인식의 대상은 더이상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다.

네째로 방법적 절차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두가지 조작을 함축한다.

하나는 약호체계 안에서 일정한 언어학적 단위를 선택(selection)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단위들을 보다 큰 단위로 결합(combination)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소에서 형태소로, 형태소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문장으로 등등.

선택이란 여러 가능한 단위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한 단위를 다른 단위에 대해 치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유사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우리는 말을 할 때에, “교육”, “훈련”, “도야” 등의 어휘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이 어휘들은 상호 유사성(또는 대립)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결합이란 선택된 단위들을 주어진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다. 선택과 결합 또는 유사성과 인접성은 언어를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두축을 의미한다.

야콥슨은 실어증의 두유형을 이 두가지 축에 따라 구별했다.³⁾

우선, 유사성 장애에 따른 실어증은 단어선택에서 곤란을 야기한다. 단지 단어들이 결합되는 과정만이 손상받지 않고 남아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환자는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를 연상시키는 데에 곤란을 느낄 뿐 아니라 대상을 명명하는 데서도 장애를 나타낸다. 간단히 말해 언어의 은유적(metaphoric)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반면에 단어들의 결합은 용이하게 이루어져서 “담배”와 “피운다”는 무리없이 연결된다.

다음, 인접성 장애에 따른 실어증은 기본적인 언어단위들을 보다 큰 단위로 결합시키는 데서 곤란을 느끼지만 동의어나 이의어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경우는 언어의 환유적(metonymic)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선택은 유사성, 은유 및 계열체(paradigm)라는 개념들로 묶어지고 결합은 인접성, 환유, 통합체(syntagm)의 개념들로 묶어진다.

이는 언어와 사고작용 또는 의식의 세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라캉은 언어학 또는 기호학의 이러한 범주들을 사용하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일정하게 재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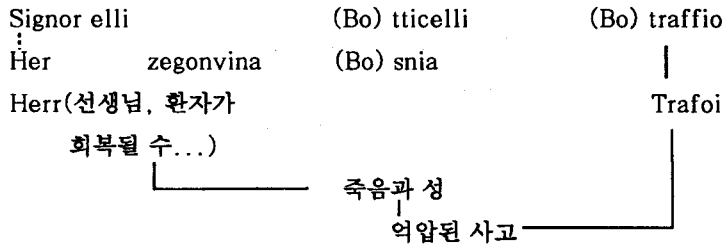
2) Umberto Eco, 기호학 이론. 서우석역.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85. p. 84

물론 이러한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프로이트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는 언어적 영역 들 예를 읽기, 쓰기,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실수들을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표출과 관련시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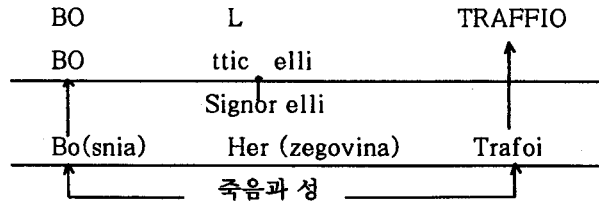
시노렐리(Signorelli) 라는 화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프로이트 자신의 사례를 보자.⁴⁾

프로이트는 보스니아(Bosnia)와 헤르체고비나(Herzegovina)지방을 기차로 여행하면서, 동행하는 낯선 사람과 이탈리아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프레스코 벽화의 작자를 생각해낼 수 없었고, 자꾸 틀린 이름인 보티첼리(Botticelli)와 볼트라피오(Boltraffio)만이 떠올랐다. 그는 낯선 동행인과 함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직후였다. 프로이트는 터키인들이 죽음에 임박 하면 운명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을 상기했다. "선생님, (Signor, Herr)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만이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것이 성적 쾌락과 관련이 있음이 의식에 떠올랐으나, 즉 터키인들이 성적 쾌락의 종말과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음이 상기됐으나 대화상대자가 낯선 사람이므로 그 생각을 회피했다. 즉 죽음과 성(Death and Sexuality)이라는 명제와 관련되는 생각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얼마전에 프로이트의 환자 한 명이 트라포이(Trafoi)지방에서 성적 장애로 인해 자살했던 일도 기억에 있었다.

이러한 연상작용의 분석 끝에 프로이트는 결국 성과 죽음에 대한 무의식이 화가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떠올리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해한다.



성적인 것에 대한 억압은 그 내용과 관련된 선생님(Herr)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역시 Signor를 기억치 못하게 한다. 대신에 보스니아 지방의 명칭에서 'Bo'가 'Signorelli'의 'elli'와 결합하거나 자신의 환자가 죽은 지방의 명칭인 'Trafoi'와 결합하여 잘못된 이름을 떠오르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은유와 환유라는 두축으로 정리하면⁵⁾



3) Anika Lemaire, *Jacques Lacan*. David Macey역. RKP. London 1977. pp.31-33

4) S.Freud, 실수의 분석(*Psychopathology of Every day Life*) 조대경 역, 정문사, 서울, 1974. pp. 11-20.

5) Anika Lemaire 같은 책, p. 208.

여기서 수직방향은 은유의 축 즉 유사성에 따른 작용이며 수평방향은 환유의 축 즉 인접성에 따른 작용이다.

물론 라캉에 있어 은유와 환유는 보다 깊은 사고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이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는 라캉의 기본명제가 이를 대변해 준다. 프로이트의 경우 억압된 욕망은 생물학적 충동에 유사한 것이고 그것이 표출되는 과정이 언어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라캉에 있어서는 욕망 자체가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라캉의 세가지 영역구분 즉 현실적인 것, 상상적인 것, 상징적인 것의 구분을 통해 간략히 본다.

2.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은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으나 인간이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전체상에 있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어학의 경우, 언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지시성이 폐기되듯이, 외부사물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징적인 것이나 상상적인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예컨대 생물학적 본능등)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표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지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라캉의 경우 "현실적인 것"이란 칸트의 물 자체(das Ding an sich)와 다르지 않다.⁶⁾

물 자체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의 인식에 대한 재료를 감성형식에 제공해줄 뿐이다. 즉 그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될 뿐 인식의대상은 아니다. 라캉은 이러한 생각을 현실과의 마주침(touch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현실을 그 자체에 있어 어떤 실체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단지 부분적인 마주침의 형태로 감지한다. 달리 말해 현실은 항상 전제되어 있으나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고통 등을 통해 체험되지만, 또한 지체되고 유예되는 어떤 것으로 감지할 뿐이다.⁷⁾

"현실적인 것은 사고, 소음, 현실의 작은 요소들에 의해 표상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현실이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우는 것은 표상을 대신하는 것의 결여 배후에 감추어진 다른 현실이기 때문이다."⁸⁾

현실은 표상된다. 그러나 표상은 표상되는 것의 부재를 전제한다. 기호란 그것이 의미하는 대상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그 대상의 부재를 대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상은 그것이 대신하는 것의 결

6) Ellie Ragland-Sullivan, *Jacques Lacan and the Philosophy Psychoanalysis*. Croom Helm. London. p. 190.

7)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Sheridan 역 W.W. Norton & Company. N.Y. 1981. pp. 55-56.

8) 같은 책. p 60.

여를 함축하며 그배후의 현실을 함축한다.

이점은 유아와 현실적인 것의 최초의 마주침을 표현하는 대상(a)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⁹⁾

대상(a)는 "육체체험과 지각간의 근본적인 간격을 뜻함과 동시에 그 간격을 메꾸는 이미지를 뜻한다. 애초부터 대상(a)는 '결여'와 그결여를 보충한다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¹⁰⁾

대상(a)의 개념을 상상적인 것의 규정 속에서 살펴보자.

3. 상상적인 것

라깡은 대상(a)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대상을 그 안에서 주체가 소멸되는 욕망의 원인으로 보는 동시에 진리와 인식 사이에 주체를 유지시키는 어떤 것이라고 본다."¹¹⁾

여기서 진리와 인식이란 인간이 언어에 의해 장악되기 이전과 이후를 각각 가리킨다. 이들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적 인식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며 진리란 언어의 의미작용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둘 사이에 주체를 유지시키는 대상(a)는 현실적인 것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것은 유아의 발생적 측면에서 보면, 유아가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어 태어날 때에 체험되는 철저한 결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결여의 대상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부분적 대상(젖꼭지, 가슴)이기도 하다.¹²⁾

라깡의 다른 모든 개념과 마찬가지로 대상(a)라는 개념도 그것이 차지하는 맥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규정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상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전개시켜 보자.

저 상상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거울의 단계'이다. 유아는 생후 일정기간(대략 6개월)자신의 몸에 대한 동일성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동물에 비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동작의 상호연관성이나 자립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상 불충분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 단계 다음에 오는 상황을 라깡은 거울단계라 부른다. 스스로 몸을 굴리거나 혼자 앉을 수 있게 되는 이 단계에서 지각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지각되는 부모등의 모습속에서 유아는 자신의 형태를 그와 유사한 것으로 생생하게 된다.

우선 자신을 안고 있는 어른과 함께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아는 실제와 반사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유아는 상을 잡으려 하거나 거울 뒤를 살펴 본다. 그리고 자신의 반사상과 어른의 반사상을 혼동한다.

그 다음에 유아는 이미지의 관념을 얻게 되고 반사상이 실물이 아님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반사상이 자신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거울단계는 '나'에 대한 첫번째 분절이다.¹³⁾

9) 대상(a)란 'objet petit a'를 말하는데 여기서 petit a 즉 소문자 a는 autre(타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유아에게 최초로 충족을 제공해 주는 현실의 부분적 대상인, 어머니의 젖가슴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 E. Ragland-Sullivan, 같은 책. p. 191.

11) Jacques Lacan, *Ecrits*. Edition du Seuil Paris, 1966. p. 10.

12) Anika Lemaire, 같은 책. p. 174.

13) 같은 책. p. 177. 첫번째 분절 (first articulation)은 Martinet의 1차 조음과 비유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거울 단계란 문자 그대로 거울과의 관계만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욕구 충족 대상인 어머니와의 동일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거울단계에서 자아형성은 1차적 동일시를 함축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그 자신에 기능적 총체상을 획득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것은 소외의 시작이다. 유아는 자신을 자신 밖에 있는 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객체화된 모습을 통해 얻어지는 자아동일성이다. 자아(moi)란 전도된 거울상이다. 거울단계에서 획득된 자아는 언어습득 이전에 자신과 반사상이라는 이항적 관계의 직접적 동일시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아에 의해 의식되는 과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라캉에 있어 인식은 오로지 언어(상징적인 것)를 매개로 해서만 얻어진다. 이 매개의 획득은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이행이자 인간의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접근은 그 자체가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자아"나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이 자신을 분절(articulate)시키는 수단을 발견하는 것은 발화의 주체를 이중화함으로써이다."¹⁴⁾

결국 상상적인 것의 영역에서 형성된 자아는 그것이 언어화되기 위해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해 유아는 '나'(je, I)라는 관념을 예컨대 부모들이 그를 지칭하는 명칭 또는 인칭대명사 '그'(he)에 상응하여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이미 언어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며 따라서 언어화되기 이전의 '그 자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를 소쉬르의 기표, 기의간의 관계인 s에 비유한다면

$$\frac{\text{그}}{\text{그 자신}} = \frac{\text{hel}}{\text{heo}} = \frac{\text{S}}{\text{s}} \quad \text{로 표현된다.}^{15)}$$

인칭대명사로 표현되는 기표로서의 나(je)는 기의로서의 무의식적인 자아(moi)를 언급한다. 발화하는 행위의 주체인 자아는 발화된 것의 주체인 나를 통해 왜곡되어 나타난다.

"기표의 모든 개입에서 작용하고 있는 주체... 즉 발화행위(I'énonciation)의 주체와 발화된 것(I'énonce)의 주체..."¹⁶⁾

발화된 것의 주체인 '나'는 언어화된 영역에서 '자아'의 대역이다. 그러나 대역이란 그 본래의 것의 부재를 나타낸다. 물론 이는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대역으로서의 현존이다. 부재와 현존의 상호교차를 통해 자아는 구성된다. 주체의 지위는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처럼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와 현존이 교차하는 자리(locus)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나는 자아를 기호에 의해 교환시킨다. 그리고 의미에서 자아는 고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고정성은 거울단계의 상상에서 획득된 가상이다. 달리 말해 자아의 두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감정과 이미지의 형식적 안정 또는 고정, 이는 항구성, 동일성, 실제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주체와 대상(a)를 구성한다.

머니와의 동일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거울단계에서 자아형성은 1차적 동일시를 함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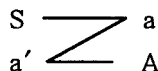
14) J.Lacan, 앞의 책. p. 711.

15) A Lemaire 앞의 책, p. 70.

16) J.Lacan. 앞의 책. p. 770.

(2) 자아에 내재된 틈, 모호성, 흠집, 이는 언어를 말하는 주체속에서 떠오르며 환상적이고 모순적인 표면상의 통일성을 부인한다.¹⁷⁾

이를 도식 L을 통해 보면



여기서 S는 상징적인 것의 영역 속에서의 주체이며 A는 대문자 타자(Autre)이다. a는 대상(a)로서 주체의 자아(moi)이다. a'는 타인의 자아를 의미한다. S와 a는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은 상징적인 것으로의 진입이 A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타자(A)는 라캉에 의해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현재의 논의에 국한시켜 한 측면만을 보면 그것은 기표의 자리로서의 언어를 가리킨다.

a와 a'는 상상적인 것의 영역에 놓여 있고 S와 A는 실선을 따른 매개과정을 통해 상징적인 것을 구성한다. 언어의 세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S와 a는 분열되며 a는 대상(a)로서 이는 동일시의 과정에 의해 자아로 간주된다. 상징적인 것의 수준에서 S와 a가 분열되는 것은 대상(a)가 상실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a)의 또다른 규정이 나오게 된다. 대상(a)는 주체의 분열에서 상실된 대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상징적 영역에서 언어화된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충족은 끝없이 유예된다. 따라서 대상(a)는 욕망의 근원이다. 즉 이 대상(a)는 욕망의 무한성을 낳는다. 자아와 동일시되는 대상(a)의 결여는, 자아의 고정된 실체가 나(je)와의 관계속에서 포착되지 않는 '자리'로 남듯이 고정된 지점의 결여를 나타낸다.

라캉에 있어 "결여"란 바로 상실된 대상을 회복하려는 욕망의 불가능성이다. 이는 기호체계에서 지시대상의 폐기와 관련된다. 기표가 지시체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욕망의 기표는 그 현실적 대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상은 초월론적 지시체(transcendental referent)이다.¹⁸⁾ 상상적인 것 특히 거울단계는 이미 소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것에서의 소의를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상상적인 것의 범주를 특징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규정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상상적인 것은 주체의 내부에서 보자면 주체와 자아간의 동일시를 설명해준다.

둘째, 상호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의 도식 L에서 보듯이 대상(a)와 자아간의 2항관계를 의미한다.

셋째, 유아가 처한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거울단계가 말해주듯 지각을 통한 성숙의 영역을 지칭한다.

넷째, 의미와의 관계에서 보면 실물과 반사상, 대상과 자아 등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표와 기의간의 무구별 또는 혼동을 나타내며, 상징적인 것 즉 언어적 의미가 갖는 간접적 매개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를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이상 상상적인 것은 인식(connaissance)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méconnaissance)이며 함정이자 유혹이다.¹⁹⁾

17) E. Ragland-Sullivan, 앞의 책, p. 43.

18) Anthony Wilden, "Lacan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J. *Lacan. The Language of Self*. John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1968. p. 218.

19) 앞의 글, pp. 174-175 참조.

4. 상징적인 것

모든 사람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언어의 네트워크속에서 태어난다. 이 네트워크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상상적인 것의 개인적인 약호는 공적 약호체계에 의해 대체된다. 언어를 매개로 인간은 사회, 문화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캉은 이러한 상징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프로이트의 "Fort! Da!" 놀이를 통해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어느날 1년 6개월된 손자가 작은 물건을 구석이나 침대 밑등에 던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 쥐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오-오-오-오'라고 외치는 것을 목격한다. 이 소리가 독일어의 'fort'(사린진, 저리)를 나타낸다고 추측한후, 다른 날 다시 그 아이가 실에 매달린 실패를 침대의 늘어진 천 안으로 던지고는 (이때에 실패는 보이지 않게 된다.) '오-오-오-오'라 외치고 다시 끌어 당겨서는 매우 즐겁게 'da'(거기)라고 소리치는 것을 관찰한다.

프로이트는 이 놀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는 아이의 커다란 문화적 성취 즉 그의 어머니가 자기 주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무런 저항없이 수용하는 본능적 포기를 나타낸다. 그는 말하자면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의 사라짐과 되돌아움을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이를 (어머니의 부재)보상하는 것이다. ... 아이는 아마 어머니가 외출하는 것을 기꺼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해할 수 없을 것이다."²⁰⁾

어머니의 부재를 수동적으로(고통스럽게) 체험하다가 실과 실패로 행하는 놀이를 통해 아이는 능동적 위치에 서게 된다.²¹⁾ 이 놀이는 현실에 대해 자율적인 언어가 탄생되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는 체험에 대해 거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버린'(fort)대상을 던짐으로써 아이는 자신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충동을 만족시킨다. 이 경우 던지는 행위와 'fort'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가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너를 보낸다."²²⁾이다.

이로써 아이는 상황에 대한 지배력을 얻게 된다. 상징행위를 통해 아이는 상황의 긴박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다. 이제 두 음소 즉 o(fort)와 a(da)가 번갈아서 사라짐과 되돌아움을 상징한다. 이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실패로 이행하며 다시 언어로 이행한다.²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언어적 상징행위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대신한다는 점이며 이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현실적 체험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것은 동시에 그 체험의 흔적을 지니지 않은 기표로 그것을 치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미를 가능케 하는 기표체계는 a와 o라는 두음소의 대립관계로 규정된다.

20)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James Strachey 역. Norton Library 1961. p. 9.

21) 같은 책. p.10.

22) 같은 곳.

23) Anika Lemaire. 앞의 책 p. 52.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라깡을 따라 언어의 출현은 무의식을 구성하는 1차적 억압과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언어의 습득과 무의식의 형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의 이행은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정점으로 하면서 완료된다. 상상적인 것이 2항적 동일시를 특징으로 한다면, 즉 유아와 거울상 또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동일시를 특징으로 한다면 상징적인 것은 3항적 매개관계로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2항간의 분리를 수반한다. 이 분리는 제3항의 등장 즉 경쟁차로서의 아버지의 침입이다. 여기서 2항적 동일시인 1차적 동일시가 2차적 동일시에 의해 대체된다.

유아가 부모중 자신과 같은 성(性)의 이미지와 동일시를 이루는 것이 외디푸스의 단계이다.

이는 세시기로 이루어진다.²⁵⁾

1 시기: 아이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접촉이나 배려만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결여된 것 즉 남근(Phallus)의 보완물이하고자한다. 그는 어머니의 욕망의 욕망이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그 자신을 욕망의 대상 즉 남근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남근은 남성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와 어머니간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사회적 세계에서 아이가 수용해야 하는 법 또는 금지를 표현한다. 이는 아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동일시를 뜻한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남근일 수 없기 때문이다.

2 시기: 아버지는 아이로부터 그 욕망의 대상을 박탈하고 어머니로부터 남근적 대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2항적 동일시에 관여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아이는 상징적인 것으로의 진입을 시작한다.

3 시기: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성립된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Nom-de-Père)에 접근하여 사회적 법을 수용한다. 그는 남근으로 존재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남근을 소유한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성취한다. 이처럼 '존재'에서 '소유'로의 이행을 통해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해결된다. 이는 근친상간의 금지에 바탕을 둔 문명세계로의 진입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이름(Nom)은 금지(Non)를 함축한다. 아버지의 이름에 토대를 둔 법의 수용이 언어의 수용이다. 즉 공적인 약호체계의 수용은 기표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며 이는 상상적인 것의 차원과 달리 이 경우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라깡의 S/s에서 기표(S)와 기의(s) 사이를 가로 지르는 선은 분리 또는 장애, 금지를 나타내기도 한다.²⁶⁾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억압은 상징적인 것의 획득과 동시적이다. 무의식과 언어의 이러한 관계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라깡의 명제로 진술된다. 이는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은유와 환유가 무의식의 고유한 분법에 핵심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유와 환유는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제시한 무의식의 두가지 메카니즘인 응축(Verdichtung)과 전치(Verschiebung)에 각각 대응된다.

꿈의 경우 응축은 잠재적 (latent) 요소를 현재적 (manifest)요소로 바꾸는 데서 현재적 요소가 여러 잠

24) 같은 책. p. 53.

25) 같은 책. pp. 82-83.

26) J.Lacan. *Ecirts*. p. 515.

재적 요소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 내용의 일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전치란 꿈이 현재적 내용으로 나타날 때에 에너지 부하의 정도가 다르도록 바꾸는 것인데 즉 약한 부분을 강하게 또는 강한 부분을 약하게 하도록 부하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캉은 전치에 환유, 옹측에 은유를 대응시켜서 해석한다.

그는 환유를 나타내는 식을

$$f(S \dots S') S \cong S(-)s, (1)$$

은유를 나타내는 식을

$$f(S'/S) S \cong S(+)s (2)$$

로 각각 제시한다.²⁷⁾

식(1)의 경우, 기표가 대상적 관계에서 존재의 결여를 정립하는 생략'(...)'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표와 기표간의 관련에 의한 것이다. 즉 전치 또는 환유의 경우 기표는 다른 기표와의 연관을 통해 대상의 결여를 정립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환유적이다. 그것은 기의 위를 계속 미끌어지면서 기표에서 기표로 이동한다. 이점은 대상(a)의 규정에서도 제시되었었다. 앞에서 욕망의 원인으로 간주된 대상(a)는 욕망을 항구성을 낳는다고 했다. 환유의 식(1)에서 ()안의 S와 s간에 그어진 선은 s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 기의가 결코 기표와 연결될 수 없음을 말한다. 욕망의 대상은 기표 밑에 감추어져 영원히 상실된 것이므로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욕망의 환유적 성격은 무의식화된 욕망이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식(2)의 경우, 은유는 의미작용의 연쇄에서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에 대한 기의로 정립되는 것이다. ()안의 + 표시는 금지를 나타내는 - 표시를 넘나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욕망이 환유적이라면 은유적인 것은 증상이다. 증상은 치료시 그것의 잠재적 요소와 현재적 요소간의 관련이 밝혀지면 즉 기표와 기의간의 관련이 밝혀지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이처럼 무의식의 전체적 메카니즘은 옹측과 전치 다시 말해 은유와 환유의 축을 통해 구성되며 이는 언어에서 의미를 산출하는 두 축인 선택과 결합의 논리에 상응한다. 라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분석에 언어학의 범주를 대입시켜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27) 같은 곳. 여기서 ' '는 일치를 나타낸다.

